

포스코건설 ESG 기반의 기업 시민 경영이념 실천



1 포스코건설이 우리은행과 ES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포스코건설이 최신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해 제로 에너지 건물을 구현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포스코건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인 친환경 경영·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의 건전성(ESG)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건설은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ESG 전담팀을 CEO 직속 기업시민사무국 산하에 신설하고, 환경과 사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영입해 전사 ESG 전략 수립과 실천을 추진한다.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친환경 경영’을 미래전략의 차별화 포인트로 선정하고 ESG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 교육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영업부터 사업수행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ESG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인 살수기’와 ‘음파를 이용한 실외공간 미세먼지 유입차단 기술’로 각각 국회의장상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상을 받았다.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한성희 사장은 “안전은 회사 존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이며,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CCTV 4천여대를 전 현장에 추

가 배치하는 등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 니즈(Needs)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는 ESG 관점의 현장 개선과 ESG 경영관리 방안 등 ESG 부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Governance)

포스코건설은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경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기업 시민보고서’로 업그레이드해 ESG 관점의 보고를 병행하고 있다.

금품수수, 횡령, 정보 조작,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인간 존중 위반 행위를 4대 비윤리로 규정하고,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ESG 기반의 기업 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토대로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 경영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A+’로 높여 받았고, 시공 능력 평가순위 ‘톱5’에도 다시 진입했으며, 한국품질만족지수 11년 연속 1위, 지속가능성지수 건설 분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